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여성 기도회 : 10 월 18(수) – 19(목) : Spruce Lake Retreat Center, PA
- 교육부 광고
 1. 10 월 28 일 토요일 6:00pm 세광교회 annual Hallelujah Night 행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라며 주위 친구들에게도 알려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교육부에서 Canned Food Drive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 년 마무리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 주일예배 찬양팀 모집합니다. : 리더, 보컬, 악기, 악보
- 오늘과 다음 주일(22 일) Flu Shot 접종합니다

2017 년 10 월 안내 : 전 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 김 민아 집사 / 시편 99 편

이번 주 친교 : 변 숙영 집사 / 홍 영순 집사

다음 주 친교 : 이 현주 집사 / 강 승연 자매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42 호

2017 년 10 월 15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 년 10 월 15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478 장(통 78 장) "참 아름다워라"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23 편	김 동수 집사
찬양(Choir)	"목마른 사슴같이"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왕상 3:3-15; 4:25-30; 11:4-5, 9-13	인도자
설교 (Sermon)	"하나님이 사랑한 왕"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490 장(통 542 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2017. 10. 8. 주일 설교 요약

하나님이 택한 왕 (삼하 7:1-17)

사울은 사람들이 구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과 자질을 다 갖췄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삼상 16:7)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행 13:22) 사람이라며 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 노릇을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좇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사람들이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점점 훈련받아 갔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택할 때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들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나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선출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뜻을 행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 다윗의 자질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실 때에는 실은 하나님 마음 속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모든 뜻을 이루리라는 약속은 실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었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행 13:23).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주권과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주권적인 은혜인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나아가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자기가 짓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자칫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두고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은혜로 끼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서운해하거나 따지지 않고 즉시 자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자격없는 자기를 왕으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대함을 얻어, 그 약속이 이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기를, 그 약속 안에서 자기의 집이 복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같은 소원(하나님 집이 세워지도록)이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자기 명예를 메면 수고하고 지치지만 예수의 명예를 메면 쉽고 평안이 있습니다(마 11:28-30).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나를 위한 내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메게 된 예수의 명예입니까?

은혜로 왕이 되었고 은혜로 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게으르게 은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의 직분과 상황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 이루지 못할 헛되고 큰 일을 꿈꾸느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시 131), 지금 상황과 주어진 일에 즐겁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 내가 놓인 자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섬기고 일하게 됩니다.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시 78:72)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형제 자매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서가고, 예수의 구원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지는 확신과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